

보도자료

July 27, 2020

바스프의 혁신 소재, 수면의 질 향상시키는 미엔 베개에 적용

- 다양한 수면 자세에 최적화된 편안함과 지지력을 제공하는 첨단 폴리우레탄 폼 개발을 위해 양사 간의 협력
- 바스프의 코지퓨어(CosyPUR®) 소재를 통해 미엔도(MIANDO) 베개의 대표적인 콩 모양 디자인 연출
- 혁신 소재로 스마트 수면 기술을 베개에 내장화

2020년 7월 27일 -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의 폴리우레탄 브랜드인 코지퓨어(CosyPUR®)가 중국 상해 소재의 슬립테크(sleep tech) 기업 미엔(MIAN)이 새로 출시한 혁신적인 신제품 베개인 미엔도(MIANDO)에 적용된다.

미엔도 베개는 수면 장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제품으로, 바스프의 폴리우레탄 소재를 활용한 최적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베개는 핵심적인 스마트 기술이 내장되었다. 베개 속의 센서로 근육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식하여 수면 상태에서 사용자의 목과 머리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정확한 수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베개의 형태와 소재가 중요한데, 바스프의 코지퓨어 소재는 폭신하면서도 뛰어난 지지력으로 수면 데이터 수집을 지원함과 동시에 미엔도의 대표적인 콩 모양의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지퓨어 소재는 비통기성 메모리폼 (closed-cell memory foam)을 사용한 대부분의 기존 베개와 달리 우수한 통기성을 기반으로 장기간 사용에도 시원함과 쾌적함,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미옌의 딘 슈(Dean Xu) CEO는 “사람의 몸과 마음은 매일 밤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며, “미옌도 베개는 특유의 모양으로 다양한 수면 유형의 고객에게 지지력과 폭신함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바스프 아태지역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문 소비재 산업 총괄 민리 쟈오(Minli Zhao) 사장은 “바스프는 고객 요구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코지퓨어 폴리우레탄 폼을 발전시켰다”라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코지퓨어는 침구와 가구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옌도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판매 중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mirahom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의 코지퓨어 소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 소개

바스프의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는 혁신적인 맞춤형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개발을 담당한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시스템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운송, 건설,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소비재 등 네 개 주요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과 솔루션에 기반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R&D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는 2019년 60.6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바스프 퍼포먼스 소재 사업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plastics.bas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스프 그룹 소개

바스프는 화학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다. 바스프는 경제적 성공 뿐 아니라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바스프 그룹에 근무하는 전 세계 약 11만 7천 명의 임직원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및 국가에서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바스프 그룹은 화학 제품, 원재료, 산업 솔루션, 표면처리 기술, 뉴트리션 & 케어, 농업 솔루션의 6개 분야에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바스프는 2019년 약 59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바스프 주식은 독일 프랑크푸르트(BAS) 및 미국에서 미국주식예탁증서(BASFY)로도 거래되고 있다. 바스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bas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